



○아바타 마스터 코스 리뷰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고준환경 기대(법학) 교수.

‘한계없는 의식’ 경험...자기 뜻대로 사는 길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고준환 교수의 아바타 체험기

1. 아바타란 무엇인가
2. 수련과정
3. 아바타의 메시지



필자는 지금부터 40년 전 서울대 법학과 1학년 때 법철학 주회 불탄절 기념 법회에서 이철담 스님의 마음 법문'을 이생에서 처음으로 들었다. 나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진리'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 반면에 나는 다른 수련체제로 국조 단군왕검을 중심으로 하고,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심기신기(心氣身)를 수련하는 신선도(神仙道),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초월 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 현대 미국의 부처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해리 팔머(Harry Palmer)가 창시한 아바타(Avatar) 등을 배웠다. 1992년부터 경기대 교수로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교환교수로 2년간 머문 것이 필자가 아바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필자는 자기의식개발 과정인 아바타 코스와 아바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스터(Master) 코스, 그리고 궁극적 과정인 위자드(Wizard) 코스를 마치고 함월(含月) 박준수 변호사, 능인(能仁) 이인자 교수, 아내 조순옥 등 10명에게 아바타를 전수한 바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 마스터에 의해 아바타를 전수한 것은 필자가 처음이다. 아바타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ava, 아래로)와 타라(Tara, 땅)의 합성어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화신(化身, incarnation) 즉 신선(神仙)이나 화신불(化身佛), 또는 보살(菩薩)을 의미한다. 해리 팔머는 "아바타는 자발적으로 창조에 참여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나타난 신성(神性, deity)이며, 깨달음의 길을 다 가서 '한계 없는 의식(awareness without limit)'을 경험하고 창조세계로 돌아온 존재"라고 그의 저서 <창조학(creativism)>에 썼다. 여기서의 아바타는 해리 팔머가 대학생 시절부터 <선(禪)불교> <주역> <도덕경> <하리크리슈나> <라자요가> <싸이엔톨로지> <바이오 피드백(Bio-feedback)> 등 구도의 방향 끝에 많은 영적고양(靈的高揚)을 경험하고, 감각차단탱크(Sensory deprivation tank)를 통한 깨달음을 얻은 바, 한순간에 속속들이 깨달아 알게 된 초월적 경험을 가졌다. 생명에 대한 완전

한 자비를 경험했으며 그대로 머무를 수도, 돌아올 수도 있는 보살의 선택권이 있었으며, 지켜볼(observing)과 그 대상 사이에 분리가 없었다 한다. 그 후 그는 미국 뉴욕주 버크(Buck) 산에 들어가 보임(保任)한 다음, 1986년 10월 17일부터 이 자기개발 무한기법을 그의 도반들이었던 아브라함인, 마이클, 스웨랜드 등에게 처음으로 전수하기 시작했다. 이 아바타 프로그램은 그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놀라운 효과로, 1988년 미합중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정신문제 상담 및 인간의 잠재력 개발



○아바타 창시자 해리 팔머

해리팔머 창시...1988년 미국서 공인 66개국 6만여명 '코스' 마쳐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효과"

교육기관인 스타즈 엣지(Star's Edge) 회사가 미 플로리다 주에 창립되어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었다. 아바타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15년만인 2001년 10월말 현재로, 전세계 66개 국가에서 약 6만여 명이 아바타 코스를 마치고, 약 4천여 명의 마스터를 배출했으며, 아바타 교재인 <창조학> <뜻대로 살기> <다시 떠오르기> 등은 영어, 한국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14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아바타 코스의 목적은 기성 종교 등 특정 신념체계에 빠져서 경직된 수행기법의 틀을 깨뜨리고, 삶의 창조근원

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함으로써 자기 뜻대로 현실을 창조하고,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적 프로그램이라는 데 있다. 즉,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의 발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아바타의 특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경험이 신념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Belief)이 경험(Experience)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②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복잡다단한

현실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 즉 번뇌망상이 많고, 느낌(feeling)이 적어 원만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느낌'을 잘 개발하고, 번뇌망상을 줄여 원만한 마음을 갖게 한다. 즉 지·정·의(知·情·意) 세 가지 마음요소가 조화를 이룬다. 마음의 탐사기술은 나의 안이나 밖을 판단(判断)없이 관찰하여 살피고 알아차려 깨달음을 얻게 한다. 붓다의 사념처관(四念處觀, 身受心法 觀)과 맥을 같이 하고,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 나오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문제는 간택(間斷) 분별 선택에 있다"에 부합된다. ③사람이 근원(Source)인 창조자(Creator)로서, 뜻대로 창조하고 소멸하게 함으로써, 멋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적멸의 길, 붓다의 길로 돌아가게 한다. 행복에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그것은 붓다의 연기론(緣起論)이나 업(業, Karma)의 논리에 따라, 업장을 녹여야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가능하므로, "화해의 언덕 오르기"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장애의 덩어리인 "근질긴 덩어리" 등을 창조 다루기 절차(Creation Handling Process)로 다뤄, 청정무구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문제는 '나'이고, 나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④아바타 코스는 전과정이 '점검표'에 따라 책을 읽거나 실행하는 경험위주의 객관적,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일부 사이버 종교나, 사이버 수행기법처럼 위험하지 않다. 아바타 코스에 드는 비용은 종교의 보시나 헌금 형식이 아니라 거래체제(去來體制, give and take)이다. 원칙적으로 처음 배울 때 미화 2,000불을 내면, 같은 코스에 들어가 복습할 때에는 코스비용을 내지 않는다. 코스비용이 일견 비싼 듯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만 하면 한번으로 끝나니, 깨끗하다고도 할 수 있다. ⑤아바타는 선(禪)이나, 명상과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아바타 코스 중에 한 곳에 오래 앉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히 관찰하는 과정이 있으며, 다른 기법도 많이 있다. ⑥'자기가 창조한 대로 경험하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또 외부형상의 세계를 몽환포용이라 보는데, 아바타에서는 거품이라 본다.

불자되는 인연 만들어 주기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월·발심의 달

- 원(願)을 세우자
-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 나의 초발심 시절
-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 매일 발심하는 불자들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3일 오후 2시, 봉은사 포교원 앞 상담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문을 연다. 다소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발문을 연다. "불교에 관심이 있어 왔는데요. 아는 것이 없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절은 어떻게 하고 주지스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기초교리·예법 등 설명

이렇게 불교를 잘 모르는 초심자들이 찾아왔을 때, 사찰 대부분은 그들을 불법으로 이끔 뚜렷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불교의 현주소다. 불법에 대한 인연을 강조하다보니 인연이 있는 자는 불법을 만날 것이고 인연이 없다면 애써 잡아도 불법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사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곁들 수밖에 없었고, 1년에 한번 법당을 찾으면서 불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졌다.

이런 취약한 포교현실 속에서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고자 모인 모임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 모임이 바로 봉은사 신도들이 중심이 돼 만든 새신자전법회(회장 김정순)다.

김정순 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은 하나하나 질문하며 초심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준다. 불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불교

의 기초교리는 물론, 봉은사 스님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까지 꼼꼼히 행한다. 천년고찰인 봉은사 주변 건물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준다.

새신자전법회는 매달 초하루 초심자를 위한 법회를 봉행하고, 초심자들에게 봉은사보통곡 꼭 챙겨줘 봉은사의 행사에 동참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자 곁들기만 하면 불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들은 어느새 봉은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라 봉은사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새신자전법회 회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5계, 6바라미 같은 불교 기초 교리를 스님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달 초하루 초심자 법회

"아직도 멀었습니다. 올해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포교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알찬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회장과 회원들의 새해 서원은 보다 많은 불자의 탄생으로 나타나길 것이다.

강유신 기자



○봉은사 새신자전법회는 언제든지 상담실을 개방해 초심자들(왼쪽)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발심의 계기를 만들어준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퍼먼교 중앙회

총정권태허

사실장 손무공

- 원로의원 박보명
- 원로의원 김용담
- 원로의원 이송좌
- 원로의원 유범용
- 원로의원 최대중
- 원로의원 변대성
- 원로의원 전정송
- 원로의원 강국당
- 원로의원 강무구

- 중앙총회의장 김대운
- 중앙총회수석부의장 김대연
- 중앙총회부의장 조혜원

- 총무원장 이대봉
- 교육위원장 김대광
- 연수위원장 장대범
- 감찰위원장 이관곤
- 포교위원장 이대봉

- 총무부장 김만혁
- 교무부장 정대련
- 재무부장 최대환
- 조직부장 김일광
- 규정부장 김만공
- 교화부장 안자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의 3

아파트내 110-8488

대한불교 퍼먼교 중앙회

전화 : 011-391-4376